

여야 모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정치권, 보훈처 퇴출·기념곡 제정 추진 한목소리 질타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배제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기념곡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여당의 차기 당권주자로 유력한 김부성 전 원내대표까지 나서 국가보훈처를 질타하고 이번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새누리당 김 전 원내대표는 7일 광주시청과 통화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 투쟁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던 노래"라며 "(기념식에서 노래)해오던 것을 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그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닐텐데 왜 경지공파를 일으키느냐"며 "광주민주화운동도 가슴 아픈데 잘못된 판단으로 왜곡된 분위기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 "당의 공식 회의가 있으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주장할 것"이라며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해서 예전과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강운태 광주시장과의 통화에서도 이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북한민주화운동을 펼쳐 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 국민에게

이미 5·18을 상징하는 노래가 돼버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내버려 두고 별도의 노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로 기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9년말 보훈처가 5·18 공식 기념노래를 공모하러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음에도 지난해 말 또다시 5·18 기념곡 제정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념곡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에 약간 당황스럽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대변하는 노래"라면서 "정부는

속 좁은 행태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에 나서는 것은 프랑스 (국가인) '라마르세예즈'를 불순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인 일로 기역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마르세예즈'는 프랑스대혁명 후인 1792년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일 때 프랑스 의용군들이 처음 불렀던 노래로 '그들의 불결한 피를 우리 들뜬에 물처럼 흐르게 하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격조 높은 가사로 유명하다. 통합진보당 오병운 원내대표도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는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처사"라며 "민주주의·평화·인권을 바라는 전 세계인의 노래이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 공식 추모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부성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가슴 아픈 역사 왜 왜곡시키나
올해도 5·18 기념식 참석해 노래 부르겠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 국민에게 5·18 상징이 된 노래
별도의 기념곡 제정은 소모적인 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대변하는 노래
정부는 속좁은 행태 멈춰라

오병운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는 민주주의 모독
세계인의 노래, 5·18 추모곡 지정해야

국회에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강기정·이종결 의원 기념곡 지정 촉구 직접 불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배제하기로 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회에서 울려 퍼져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고 혼이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이번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도 포함하고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래를 직접 부르는 포퍼먼스(?)를 감행했다. 강 의원은 애초 가사를 읽어갈 생각도 했으나 노래를 직접 하는 게 정부의 자세를 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에서 직접 노래를 했다. 그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33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 유족과 시민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통합이고 그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임을 위한 행



강기정 의원 이종결 의원

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이종결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움직임에 대해 "멜로디도 좋고 특별하게 감을 줄만한 단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노래를 직접 불렀다. 이 의원은 "정부 몇몇 사람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장이 사태파악을 잘해서 (퇴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일 국가보훈처를 방문한 조호권(오른쪽) 광주시의회의 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요구하는 광주시의회의 결의안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공식 기념곡 지정을"

의장단, 박승춘 보훈처장에 결의안 전달

광주시의회 의장단이 7일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요청했다. 조호권 시의회의장과 조오섭 운영위원장,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전 9시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실무국장 2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의장단은 또 지난날 29일 광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전달하고, 2009년 이후 중단된 5·18 기념식에서의 제창순서를 부활시켜 줄 것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승춘 보훈처장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5·18 기념식 전에 합의점을 찾아 국민 화합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추모곡 공모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수립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새 지도부-안철수

5·18 호남민심 잡기 '일합'

17·18일 광주 방문

민주당 지도부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즈음해 나란히 아련의 뒷발인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 출범으로, 안 의원은 국회 입성으로 각각 새로운 정치적 전기를 맞이한 가운데 호남 민심을 놓고 정식으로 대면하는 형국이다. 우선,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8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를 하루 전에 방문해 당원들과 시민들과의 접촉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18일 5·18 기념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특히, 안 의원은 17일께 광주를 방문, 시민과의

대화는 물론 지지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살피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아직 최종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을 잊지 않고 있으며 하루나 이틀 전에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5·18을 계기로 민주당 지도부와 안 의원이 광주에서 정면으로 마주함에 따라 호남 민심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호남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지만 지난 대선 때는 당시 안철수 예비 후보에게 많은 기대를 보여 '안풍(安風,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의 신당 창당 등 독자세력화에 나설 경우, 호남 민심의 향배가 결정적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호남 민심이 균형추가 안 의원 쪽으로 기울 경우, 아련의 정치 지형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 의원은 근거지였던 광주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치적 포석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의원이 광주를 방문, 신당 창당 등 정치 세력화 방안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도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2013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일시 2013년 6월 2일(일) 오전 8:30
장소 광주 상무시민공원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신청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을 입력하세요.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스포츠 양말

주최 |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주관 | AMORE PACIFIC
후원 | 보건복지부 ·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 HERA · 케토름 · 르까프